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인천 항만물류업계와 현장 소통

- 물류업계 위기 극복 위해 인천항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 청취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4일(화) 인천 지역 항만물류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물류 현안과 업계 고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물류 여건 변화 속에서 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인천항의 위기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 장관은 항만물류업계, 항운노조, 연안여객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폭 넓게 청취했다.

황 장관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운 파고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인천항 물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라며, “정부는 인천항만물류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김한울 (051-773-5750)
	항만물류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유재신 (051-773-5755)